

이상영 베드로 신부님께!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정체불명의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어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9월 4일날 저의 질녀인 정주혜양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어 처음으로 신부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남, 서울, 그리고 고향인 광주에서 27년째 중등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 작년부터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5년 전 광주 계림동성당에서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의 처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중이며 가정밖에 모르는 순진무구한 사람입니다.

큰 딸은 서울대 졸업반이며 지금은 의학전문대학원 시험 준비로 분주합니다. 아들은 경희대에서 기초의학을 공부하다 지금은 DMZ에서 수색대대요원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제대합니다.

제가 이렇게 망설임 끝에 펜을 들게된 것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칠보성당에 들어서 처음으로 신부님을 뵙게 되었을 때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년전 광주 임동성당에서 윤공희 대주교님을 멀리서 뵙을 때 받았던 느낌과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맑고 깨끗하여 뵙는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며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기분을 이해하실런지요?

미사 중에 보여주신 적당한 유머와 부드러움 그리고 은연중 느낄 수 있는 인간에 대한 배려심에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의 질녀인 정주혜양은 10여년 전 아버지를 질병으로 여윈 슬픔과 뒤따라오는 경제적 궁핍으로 그 예쁜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불행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대학도 할아버지의(저의 장인어르신) 도움으로 겨우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질녀가 결혼식장에서 시종 웃음을 보이며 행복해하는 것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신부님의 편안함과 따뜻함이 그런 분위기를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신부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칠보성당의 신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하며 부러운 마음뿐입니다.

신부님!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강성문 프란치스코 올림